

안전협회 서울지회 Lockout/Tagout 세미나 실시



안 전협회 서울지회(국장 채수현)는 11월 2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에서 Panduit Korea와 Lockout/Tagout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날 협회 이흥지 회장은 안전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안전기술국 윤경채국장의 Lockout/Tagout에 대한 OSHA표준 소개, 펜듀이트 정차리팀장의 Lockout /Tagout 관련 표준 및 절차, Panduit 아시아 지역담당 Mr. Gilbert Ngu의 해외적용사례 발표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내 법제화를 하여 중대재해를 감소시켜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남지역 산재예방간담회



안 전협회 성남지회(국장 이선호)는 11월 23일 이흥지 회장,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정수복 소장과 박영길 안전과장, 안전공단 수원지도원 한충희 원장 등 내외귀빈과 안전관계자 150여명을 모시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 후원으로 성남지역 산재예방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이흥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안전은 정부의 강제 주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 자율 안전관리에 안전인 스스로가 앞장 서야한다.”는 안전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정수복 소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날 성남지회 이동호 대리가 참석 안전인을 대표하여 11대안전보건 기본수칙 준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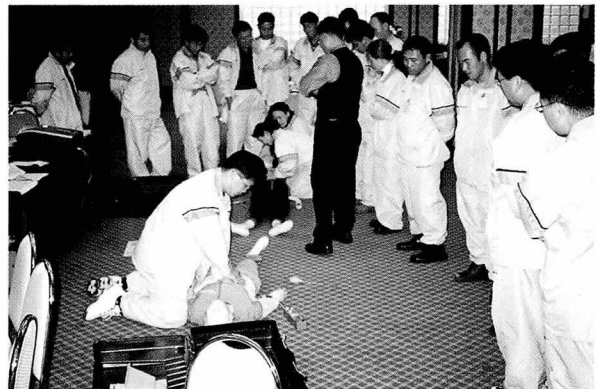
영남지역 산재예방 등반대회

안전협회는 지난 11월 17일 구미 금오산에 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및 Clean 3D 조기정착을 위한 영남지역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6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Clean 3D 조기정착을 기원하며 대부분 참가자들이 정상 등반에 참가하였다. 모처럼 주말 등반에 구미공단의 한국전자 등 사업장 직원, 학생, 시민들과 함께 늦가을 마지막 단풍을 즐기며 사고없이 무사히 등반을 완료하였다. 이날 등반은 이홍지 회장님의 독려로 대부분 임직원들이 정상까지 왕복 약 4시간에 걸친 등반을 함께 하였다.



응급처치 및 산재처리 전문가 교육 성황리에 실시

안전협회 중앙회는 11월 13일~16일까지 오색그린야드 연수장에서 한전기공(주)와 17개사 43명이 참석하여 응급처치 및 산재처리 전문가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응급처치 원리 및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한 적십자사 사명동 강사의 강의와 재해발생시 처리요령에 대한 안전협회 채수현 국장의 강의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능력을 향상시켰다.



성신양회공업(주) 무재해 10배 금자탑 쌓아



성신양회공업(주)(박찬 대표)는 지난 9월 20일 무재해 10배 목표를 달성하고 11월 14일 무재해기 전달식을 가졌다.

1992년 1월에 무재해 운동을 개시하고 금년에 드디어 동종 업계의 최초로 무재해 10배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성신양회공업(주)는 시멘트 사업부와 레미콘 사업부로 구분되는데, 이번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곳은 레미콘 사업부의 안양공장(김영주 공장장)이다.

“경영주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도 잘해 주어서 달성한 쾌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김영주 공장장은 이어서 무재해 15배를 달성하기 위해 힘찬 다짐을 하였다.

ARS 1544-1919 고용보험·고용정보 서비스 개시

11월 19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1544-1919로 시내통화요금으로 ARS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을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전국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산업용 폐기물처리업 근로자 독성간염 집단발병

울산 소재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원창 및 협력업체 창우실업(주) 에서 발생한 독성간염에 대해 실시중인 노동부의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1인을 포함한 3명의 근로자는 독성간염, 1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된 (주)원창 및 창우실업(주) 소속 생산직(23명) 및 사무직(12명) 근로자 35명 전원에게 대하여는 의사진찰, 임상검사 및 간초음파검사 등의 건강진단이 이미 '01.11.20 완료되어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

한편, 노동부는 (주)원창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50여 업체 중 다수의 사업장이 강력한 간독성물질인 시염화탄소(CCl₄)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하여 본부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01.11.22(목) 울산에 긴급 파견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역학조사 진행과는 별도로 (주)원창 및 협력업체인 창우실업(주)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노 동부는 최초로 30인 이상 기업체 2,000개소를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중 어떤 형식으로도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15.6%이며, 발명을 통하여 기업이 이익을 남겼거나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실시·처분보상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에서는 직무발명 건당 평균보상금액(실시·처분보상금 포함)은 1,559만원이고, 이중 건당 등록보상금은 특히 347만원, 실용신안 141만원, 의장등록 72만원으로 실시기업에서는 비교적 높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실시·처분보상금으로 수입금의 13.5%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정 등록보상금은 특히 456만원, 실용신안 305만원, 의장 204만원으로 나타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의 방식·금액은 직무발명심의회·외부 전문기관 심의(23.0%)나 노·시간 협의(16.1%)보다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중(38.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절기 대비 600여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노 동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2월 초순까지 약 한달간 안전관리 취약 현장 600여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중에서도 평균 재해율 2.0배 초과현장, 중대재해발생현장, 위험상황 신고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취약요인인 동파 및 화재·폭발 재해예방조치 실태와 지하 터파기 공사장 등의 지하시설물 방호조치 여부, 추락·낙하 재해예방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① 최근 1년간 중대재해발생현장, ②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③ SOC 시설 적색현장, ④ 근로자의 진정, 고발, 신고 등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의 현장을 점검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위반하여 재해를 유발한 현장은 사법처리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 또는 안전진단 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